

성 요한 세자
탄생 대축일

기도서 P. 320 B해

제1독서(이 사 야 49, 1-6)
제2독서(사 도 13, 22-26)
복 음(루 가 1. 57-66)

숲 정 이

발행인	범 석 규
인쇄인	김 불 희
주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④2935)

▶ 감 론



생명의 양식

서 용 복 신부

예수께서는 수난 전날일 성목요일에 성체성사를 세우셨습니다. 성체성사를 세우신 것은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의 표현이며, 사랑의 성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사도들과 이별하시기에 앞서 당신의 살과 피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 생활에 있어서 양식은 꼭 필요합니다. 양식은 바로 우리가 생활 필수조건으로 하는 의식주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양식의 궁핍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참으로 슬프고 불행한 일입니다. 양식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분배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참으로 불행한 사실입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양식이 너무 남아돌아가 기근과 아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나라에서는 항상 기근과 아사를 당하는 곳도 있습니다.

전 세계의 사람 어느 누구에게나 양식은 중요합니다.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양반"이라는 말도 있듯이 먹고 마시지 않고서야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가끔 농담삼아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살기 위해 먹는가?" 아니면 "먹기 위해 사는가?" 내가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만 사는 것같이 보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외에 중요한 것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에와도 먹음으로써 범죄하였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아담과 에와에게 에덴 동산에 충분히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금지된 선과목을 따 먹음으로써 죽음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사람은 탐욕의 일을 해야만 먹고 살게끔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자신을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요한 6장35절)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참 생명에 굶주린 자들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며,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릴 것이다."(요한 6장54절)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제단에서 사제와 함께 미사를 드리게 됩니다. 먹고 배고픈 양식만 찾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양식(성체)을 잘 받도록 노력합시다.

(전주 중앙 주임신부)



연자맷돌이

찰찰찰...

학생들 서넛이 몰려 있다. "찰찰찰" 둥전 혼드는 소리가 들린다. 하나가 두 손에 둥전을 쥐고 흔들다가 주먹을 내민다. 둘러 있던 아이들이 "아찌" 또는 "뒤편", "쌈" 하고 말한다. 주먹이 퍼진다. 둥전이 냇이 들어 있다. "아찌"가 이겼다. 쓰는 용어가 귀에 설면서도 잡종어(雜種語)라는 느낌이 든다. 아마 이런 뜻이리라. "아찌"(일본말 잇찌=1), "뒤편"(한자어 두이=2), "쌈"(삼(3)의 된소리, 또는 중국말 썸=3). "찰찰"(3을 제외하고 셈하기 때문에)字라는 신조어(新造語)가 있다고도 한다. ㄹ(1-2||) 또는 ㅍ(-||3). 이것이 소위(쌈치기) 또는(비비기)라는 놀이(?)다 아마 소리가 그래서 <찰찰이>라고 부르는지도 모르겠다.

서울에서 학생들이 <찰찰이>라는 노름을 하다가 수업료를 날리고 살인을 했다고 한다. 학생들의 수학여행 코스에 빠질 수 없는 놀이(?)가 또한 이것이라고 한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나쁜 풍조가 하나 있다. "힘 안들이고 한뭇짜", "손 안대고 코풀어 보자"는 것이다. 정상적인 방법은 안된다. 목이 달아나도 좋으니 뇌물은 크게 먹자. 내 돈 없어도 국민들 돈(은행통) 얻어낼 줄을 잘 잡으면 된다. 회사는 망해도 나는 망하지 않는다. -이런 속에서 학생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오히려 학교의 가르침이 바보같은(?) 소리로 들릴런지도 모른다. 부모들도 크게 노름을 하는데, 나도 어서 훈련을 해야겠지 하는 맘이나 아닌지 모르겠다.

우리 모두는 서로의 거울이다. 서로의 스승이다. 이웃의 스승인 내가 혹이라도 남을 죄짓게 하여, 나귀가 들리는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걸은 바다에 던져져 죽는편이 오히려 나을(마테오 18장6절) 정도는 아닌가?

숲 정 이 산책

인권강연회 및 김지하의 밤
1979년 6월 25일 밤 8시
장소: 전동성당

탄압

한지하의 밤

유토피아 流土彼我

젊은이는 교회의 고아인가?

김 병 엽 신부

사제 양성을 위한
사순절 성금운동 중간보고 ③

—파티마 369원필로 1위

감사합니다.

이제는 매듭을 지어 봅시다.

속이 빈 토끼라도 본당에 가져다 댁시다.

지구	본 당	79년도 사순절		전년도대비
		성 금	1인당	
제 1 지구	창	106,250원	115원	81%
	고	220,000	81	129
	김	155,551	87	103
	부	76,000	65	163
	수	203,100	109	242
제 2 지구	신	84,300	161	129
	태	317,758	125	90
	원	221,820원	293원	182%
	정	324,665	212	275
	음	174,155	153	해당무
제 3 지구	야	357,000	210	167
	동	205,340	172	141
	동	193,955원	87원	140%
	동	262,450	161	140
	동	200,000	135	214
제 4 지구	동	490,000	196	126
	동	275,307원	107원	131%
	동	203,700	107	210
	동	205,877	201	165
	동	314,124	165	157
제 5 지구	동	158,400	186	136
	동	502,000	145	127
	동	424,870	122	197
	동	236,020	369	해당무
	동	203,297원	158원	140%
제 6 지구	원	127,060	150	158
	관	90,961	150	146
	창	122,556	117	130
	찰	187,000원	133원	110%
	실	200,030	230	135
제 7 지구	산	154,010	97	190
	주	37,715	40	235
	계	110,940	65	126
	수	109,000	90	196
	안	179,687원	117원	130%
제 8 지구	열	174,135	150	114
	산	212,000	106	259
	등	184,080	148	166
	등	130,520	134	118

내가 말하는 유토피아는 이상향적인 그런 말은 아니다. 漢字語 그대로 나도 제삼자도 그리고 땅도 어디론지 흐르고 있다라는 해석이 올바를 것이다.

언젠가 동료와 함께 유토피아에 가본적이 있다. 들어 서자마자 어둠침침한 방에 희한한 조명들이 눈을 어지럽히고, 전자울겐, 짤짤이의 반주에 맞추어 너댓명이 텀포가 빠른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 무대 밑에는 잘 보이지는 않지만 20대 청년들이 영화 "토요일 밤의 열기"에서 보았던 춤을 추고 있었다. 그 수는 적은 수가 아니어서 무대가 비좁았다. 테이블을 중심으로 놓여있는 의자 수를 세어보니 대개 120~130개의 의자였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맥주 한병에 2천원 꼴이 되는 값 이란다. 왜 이런 비싼 술을 마시면서 이곳에는 무대가 비좁고 성당에는 젊은이들이 텅텅 비어 있을까? 군에 입대한 때문일까? 현대 세계의 추세를 따라 매도시 집 중화 때문일까? 그렇지 않으면 집에 틀어박혀 공부만 하고 있는 탓일까?

그렇다면 이 流土彼我에도 텅텅비어 있어야 할텐데... 말야 사목자의 한사람으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문제이다. 내가 로댕이 되어 깊이 반성하여 볼 문제 이다. 분명히 젊은이에게 아마 등한시 한것이 사실일 것 이다. 일년에 봉헌금 50여만원을 내는 교우가 한주일 이라도 빠질양이면 전화통이 불이 나지는 않았는지? 나에 게 고맙게 대하여 준 어느 교우가 몇일 보이지 않으면 어디에 갔느냐고 이기적인 염려는 하지 않았는지? 그러 면서도 젊은이들이 모이면 시끄럽고, 회의중에 모이면 다루기 쉽고, 주먹이 왕래하는 처사 때문에 골치거리로 두엄 뒤로 처박아 버리지는 않았는지? 팔씩하면 사도회 에 돈이나 청구하고 열만 내세우고 질서를 지키지 않는 다는 까닭 때문에 등한시 하지는 않았는지?

왜 젊은이는 교회의 고아가 되어가고 있는 것일까? 저 이들을 버리면 머지않는 10년이나 20년후에 교회는 누가 바통을 이어 받을 것인가? 그렇다 교육이다. 교육 젊은이들을 배우게 하면서 뉘게 하여야 한다. 울지, 주 일 저녁미사가 끝나려는 젊은이들이 어디엔가 가고는 싶 은데 갈곳이 없어 서성거리는 그 젊은이들을 몽땅 데려 다가 디스코를 추게하면서 중간 중간 좋은 말로 교리도 해보자. 그러다가 많은 이들로 부터 반발도 받고 성당이 춤추는 곳이나는 비방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어떤가? 디스코나 고고가 귀한 말인가? 지혜롭게 지금까지 내려 온 전통도 살리면서 현대 감각에 맞는 젊은이를 위한 사 목을 해보자. 그래야 젊은이들이 찌꺼기만 하느님께 바 친다는 욕을 먹지 않게 될터는지?

과연 예수님도 젊은이들 가운데 즐거운 마음으로 디스 코를 추실지 이게 의문이다. (전동천주교회 주임신부)

빛과 소금이 되시오! (교리교사출신 우대)

4·5급 공무원(주·야간)

<행정·검찰·세무·경찰·3사 은행반>

이리역전 신탁은행 3·4층(☎ 5943·8629)

이리경문학원

원장 한 정 상

◆ 3년동안 뒷손을 보아드립니다 ◆

가정용목욕탕 온수 난방시설 및 수리전문. 보이러판매 본사직영 호남출장소가 전주로 옮겨졌습니다.

한국 流 온수 온돌 공사

한 등 암 (모이세)

(본사 직영 호남 출장소)

전주 ③ 4341 군산 ③ 3032 이리 8629



농촌 사목을 위한 성직자 세미나, 성황리에 마쳐

지난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본 교구 성직자를 대상으로 <농촌문제 세미나>가, 교구 사목국과 가톨릭 농민회 전북지구 연합회 주최로 농민회 전국본부의 후원을 받아 성공리에 마쳤다.

왜 농민들은 가난한가? 오늘날 우리 시대의 농민들이 당하는 현실적 어려움과 고통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농촌의 현실적 제반문제는 물론, 교회의 현실참여가 주제인 이번 세미나의 모습은, 본 교구 대다수의 본당이 농촌인만큼 많은 신부님들, 특히 젊은 신부님들의 관심이 진지한 수강태도와 열띤 토론의 그 열기를 높였다.

사회사목에 대한 성서의 가르침을 논하고 농촌문제의 본질과 그 대책을 모색해 본 이번 세미나는 열성적인 농민회원(전국본부 임원)의 강연에 따라, 사제들의 실질적인 농촌사목에 대한 관심과 결의를 더욱 크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멀리 안동교구에서까지 지원해오신 정호경 신부님의 농촌사목에 대한 좋은 실례는 교구 사제들의 사목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또한 전국본부 부녀분과 위원들의 친절한 성원도 컸다. 그리고 농촌여성의 실태소개는 사실상 지금까지 거의 무관심 상태에 놓여 있던 농촌여성에 대한 사목적 배려를 다시 한번 생각해 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교회는 현실속에 있는 만큼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 특별히 가난과 고통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손길을 기대고 기다리고 있는 이 시대의 슬픈 모습에 참다운 교회의 모습과 태도는 무엇이어야 하겠는가? 교회는 외면할 것인가?」-주교님께서 주례하신 폐회미사의 강론은 참석한 모든 신부님의 가슴을 울리기도 했다. 첫시간부터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신 주교님의 모습 또한 사제들에게 큰 격려가 되었다.

이 모임은 교구 연중행사 계획에 없이 예기치 않게 열렸지만 의외로 많은 신부님들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

8월중의 농촌여성을 위한 세미나를 약속하면서, 그 어느 세미나보다도 아쉬운 2박3일의 일정을 무사히 마치게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릴 뿐이다.

그리스도 돕기 성금 금고 설치

배고프고 헐벗은 그리스도, 하느님 뜻을 따르다가 욕에 갇힌 그리스도를 돕는 일이 바로 크리스찬의 할 일입니다. (마태오 복음 25장)

여러가지 사정으로 마음은 있으나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기 어려운 형제들을 위하고 그 뜻을 구현하기 위한 <그리스도 돕기 성금 금고>를 마련합니다.

뜻이 있으신 분은 성금을 보내주세요. 익명으로 성심껏 접수합니다.

보내실 곳은 <교구 평협-술정이 편집실>이나 <교구정의평화위원회-사목국>으로 보내주세요.

요심이 (308) 김병오



사진재료 · 사진기계 · 도산매
칼라필름 ※교협 자매 우대

태 광 사

주 유 가에따노(영문)
전주시 중앙동(우체국 옆)
전화 ④ 6346

◆경운기 · 분무기 · 전자동 탈곡기
트랙터 · 각종 농기구일절 도산매

대동공업(주)전북총판

대표 오 승 열(박오로)

이리시 평화동 20번지

☎ 9000, 9001, 9002, 9003번

표구, 서화, 병풍, 수예, 방석, 보로

문 화 양 행

오 중 원(아오스딩)

팔달로 주택은행 맞은편 ③3170

☆교우님들 자주 들리세요

전기 · 산소용접 · 샷다 · 샷시 · 휠재
냉난방탁트 · 합성가공 · 도장공사
각종간판 · 현수막 · 아크릴

전 주 광 고 · 공 업 사

대표 이 기 배(요비노)

□ 전주시 다가동 1가 18

☎ ② 15 8 5

금 · 은 · 보석 · 고급시계는

전주 남문영 교우집으로 오세요

미성당시계점

장 글 태(방지거)

☎ 2-3301 (자택 2-8548)

직 원 모 집 공 고

1. 모집인원 : 〇명
2. 자 격 : ① 1950. 1. 1 이후 출생한 남자
② 고졸 이상의 실력을 가진자
③ 부기 3급 · 주산 2급 이상의 자격 소지자
④ 병역을 필했거나 면제된 자
3. 구비서류 : ① 자필 이력서(사진 2매) 1통
②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③ 병적증명서 1통
4. 접수기간 : 1979년 6월 29일 오후 3시까지
5. 전형방법 : 상식 및 면접
6. 면접일자 : 1979. 6. 30 오후 2시 조합사무실
7. 접수처 : 이리시 창인동 1가 235 전화 ③ 4398 (단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이리 신용 협동조합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 침묵의 교회와 북한동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1. 인권강연회 및 민족의 시인 김지하(프란치스코) 문학의 밤...25일(월) 오후 8시, 전동성당에서
※ 주최...전동 천주교회, ※ 후원...교구 정의평화 위원회
※ 뜻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바라며, 가까운 친지들에게의 권유도 바랍니다
2. 남자 "젠" 모임...오늘 오후 2시, 중앙성당 강당
3. 제 1지구 신부 회의...26일(화) 오전 10시, 원평성당에서
4. 대신학생 하기 콘퍼런스...7월 8~11일, 지리산 백사골

□ 축! 이리 창인동본당 신축성당 축성...22일, 이리에서
□ 고통받는 그리스도를 위한 성금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중양)

전화 ③3651 21
3874
주임 신부 서 응 특
보좌 신부 정 태 현
사도 회장 이 북 석

1. 영세자 합동교리: 25일(월)~29일(금)까지
시간: 오전 10시(교리실)·저녁 8시30분(강당)
 2. 영세일: 30일(토) 저녁 8시
대부, 대모 부탁받은자 꼭 참석하세요
 3. 유아세례: 29일(금) 어머니미사 후
 4. 성결, 성가집 지침하세요(미사때)
 5. 남자 젠모임: 24일 오후 2시 중앙성당 강당
 6. 쌀 지도자 모임: 26일(화)
- 지난주 불현금: 216,527원

3. 감사: (1) 제대꽃 장식-이순이(마리아)
(2) 화분 및 달걀기증-안옥주(다시안나)
(3) 성당 미화작업에 수고하신 분
 4. 주일 헌금봉투 없으신분(영세자)
사무실에서 재발급 받으시오
 5. 주일헌금은 반드시 봉투를 사용합시다
 6. 사도의 확대회: 다음주
 7. 다음주일은 교황주일입니다.
교황성하를 위한 특별헌금이 있사오니 준비바랍니다
- 지난주 불현금: 87,940원

(노송동)

전화 ③7032 21
주임 신부 김 정 원
사도 회장 김 성 립

1. 사도회 월례회: 오늘 저녁미사 후
사도회 임원들의 빠짐없는 참여를 바랍니다.
 2. 형제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3. 행사용 천막 기증: 본당에 천막(행사용)을 기증해
주신 애령회 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4. 교무급 납부의 날: 오늘은 교무급 납부의 날입니다
여러분의 교무급이 밀리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 지난주 불현금: 93,006원

(숲정이)

전화 ③7366 21
주임 신부 이 대 권
사도 회장 이 강 노

1. 본당신부님 영명축일 축하식: 오늘 공식미사 후
많은 참석하시어 기도와 축하해 주십시오
 2. 요안회 월례회: 오늘 숲정이신협 이사장님 배
 3. 신협 이사회 이사님들께서는 참석 바랍니다
 4. 유치원 명을 개명
누갈다유치원에서→숲정이유치원으로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주소: 전주시 진북동 1144이1 전화: ③ 9567번
 5. 신축기금: 홍정례·정순례(10,000원)
서진동 익명(5만원)
- 지난주 불현금: 129,720원

(덕진)

전화 ③2182 21
주임 신부 서 석 기
보좌 신부 전 종 성
사도 회장 유 제 상

1. 성령세미나: 6월 26일부터
아직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은 오늘중 신청하세요
 2. 각 단체에서는 많은구역 화단정리 합니다
 3. 이사가셨거나, 이사오신분, 주소 또는 전화번호가
변경되신 분은 본당 사무실에 연락주세요
 4. 일요일 예비자교리: 제연회(벨라벳다)
 5. 본당신부님 영명축일: 6월 29일
많은 기구와 희생으로 신부님의 전강을 위해 기구합
시다
 6. 어머니 성가대: 토요일 오전 11시-성가연습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지난주 불현금: 27,965원 교무급: 146,635원

(전동)

전화 ③3222 21
주임 신부 김 병 엽
보좌 신부 김 기 석
사도 회장 유 수 중

1. 축! 본당신부님 영명: 6월 29일
축하연-12시, 축하식-저녁 8시
※ 신자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2. 클라라 행제회: 오후 1시30분
 3. 다음주(7월 1일) 전례담당
공식미사: 양현홍(해설)
유석중(제1독서), 이종두(제2독서)
저녁미사: 김민자(해설)
이덕수(제1독서), 박종구(제2독서)
 4. 인권강연회 및 김지하 문학의 밤: 25일(월) 밤 8시
 5. 유아세례: 7월 1일 8시30분미사 후
- 지난주 불현금: 230,742원

(복자)

전화 ③5238 21
주임 신부 김 중 택
보좌 신부 박 성 성
사도 회장 조 성 팔

1. 사도회 월례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2. 성베드로와 바오로 사도 대축일: 29일(금)
 3. 침묵의 교회주일 지도지향: 6월 24일
 4. 교황주일: 7월 1일
나누어 드린 봉투에 정성드려 특별헌금 합시다
 5. 영화상영(성체): 7월 1일 저녁미사 후
학생-300원, 성인-500원, 예비자-초대권으로
 6. 예비자 교리안내: 매주일 공식미사 후
히테해서서 지도
매주 화요일 저녁미사 후-박신부님 지도
 7. 공동체 목상회 286명 받았습니다
- 지난주 불현금: 226,510원

(파티마)

전화 ③0915 21
주임신부 문 정 현
사도회장 채 수 려

- ※ 알아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금년도 저희 본당
교무급 예산이 6백5십5만원입니다. 그런데 6월이 다
가도록 교무급 납부실적은 192만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본당의 모든 활동이나 생활이 어렵게 되는 것
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약속하신 교무급을 매달 조금
씩 납부하셔서 본당 운영에 협조하도록 합시다.
또한 저희본당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제 관
이나 수녀원이 따로 없고, 각 신심단체나 주일학교
학생들이 사용회 회의실 하나 딱 바르게 없습니다.
혹 손님이 오신다 해도 편히 쉬어가실 방 한칸이 없
으며, 이곳 지역실정으로 보아 머지않아 보좌신부
님을 모셔야 할 처지인데도 저희 본당은 아무런
비도 못하고 있습니다. 본당의 여러가지 문제에 관
심을 갖고 열심되 기도합니다.
1. 본당 자체교육: 29일(금) 저녁 8시
- 지난주 불현금: 68,970원

(서학동)

전화 ③2276 21
주임 신부 오 현 택
사도 회장 활 인 구

1. 애령주일: 10시미사 후 워링기도 있음
2. 수요기도회: 27일 저녁 8시30분